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분석

Analysis of Educational Expenditures by family life cycle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 사 양 정 선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 수 김 순 미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Yang, Jung-Sun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M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which factors influence educational expenditure by family life cycle.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2,681 househol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ouseholds having high school students had the highes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school students had the highest ratio of educational expenditure to consumption expenditure. The education of household head, family type, the number of children,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family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al expenditure in all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financial management of households and give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y on education.

Key Words : 교육비(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인적자본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

* 연락처: 양정선 (jsyang1120@hananet.net)

1. 서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교육투자 열의가 식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학력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연도별 등락의 폭은 있었으나 1985년에 초등학교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100%를 넘어서고, 2002년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은 94.0%에 이르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25세 이상의 국민중 대졸자의 비율은 1990년에 남자 20.1%, 여자 8.3%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31.0%, 여자 18.0%로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03),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대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진학이 61.3%, 대학원 이상이 21.9%로 나타나(통계청, 2001) 앞으로도 고학력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교육의 수익률을 산정해 왔는데 이 때의 수익률은 대학교육 투자의 미래가치가 대학교육의 비용과 같다고 했을 때의 할인율이다.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고려했을 때 대학교육의 연평균 수익률은 5-15%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투자대안들인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의 수익률 범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문숙재 외, 2000). 우리사회가 대학교육 중심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그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중졸이하의 경우 1,317,042원, 고졸 1,546,856원, 전문대졸 1,591,166원, 대졸이상 2,442,869원으로 나타나 학력별 임금격차가 현저히 벌어짐을 알 수 있다(노동부, 2003).

따라서 가계는 더 높은 미래의 잠재적인 소득을 위해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고자 하며,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을 살펴본 통계청(2001) 조사에 의하면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전국 가계의 72.5%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각종 과외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56.0%) 그 다음이 학교납입금(37.9%)의 순이었다. 이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공교육비 지출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연령, 즉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의 연령과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전비용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0-5세인 경우 총 가계지출 중 26%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며, 6-11세의 경우 36%, 12-17세의 경우 38%를 지출하여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금전지출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Espenshade, 1984).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본 투자의 지표가 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중점을 두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소득향상이라는 가계의 복지적 명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르는 교육비의 절대액수 분석과 지출대비 재무비율을 분석하고, 각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계의 재정적 복지 향상을 위한 재무관리적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 없지만 필요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교육 축소 및 그 해결방안을 위해서 정책적 입안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의 인적자본 형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부, 기업, 가계라는 세 경제주체에 의하여 행해진다. 정부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는 사회구성원의 교육, 숙련, 건강, 정보획득 능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라고 한다.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인적자원 관리를 뜻한다. 인적자원 관리란 인력 또는 노동력을 자산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는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제도 및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제도라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교육과 숙련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인적자본이 증가하여, 개인의 소득창출 능력이 높아지며 고용안정의 담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적자본량이 증가하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기술진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진다(조우현, 2002).

이러한 인적자본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투자형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Bryant, 1992; 배무기, 1999에서 재인용).

첫째, 가장 일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방법은 학교교육이며, 이는 개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정기간 동안 학교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비, 보충교육비 등의 제반 교육비 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와 같은 기본적인 실질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취업하여 벌 수 있는 임금만큼의 기회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투자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둘째, 직장내 훈련을 통해서도 개인의 인적자본은 증가될 수 있다. 정규교육이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기술을 제공한다면 생산성과 직결되는 전문기술은 학교졸업 후 직장내에서의 훈련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직장내 훈련에는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훈련과 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훈련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내 훈련은 이 두 요소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직장내 훈련에 의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과 그에 투입된 비용은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양과 비용의 절반 정도이며, 그에 따른 수익률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ncer, 1962).

셋째,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노력들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과 옷, 그리고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므로, 의·식·주 및 의료비 등에 돈을 지출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투자 역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직장의 이동은 물론 지역적 이주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일 수 있다. 일정한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지역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보수집 및 경험을 위한 활동도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체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보 및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시간,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생산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인적자본 이론가들은 교육의 생산성 효과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한다고 본다. 인적자본 투자량과 투자 유형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투자비용과 기대수익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안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기대수익이 투자비용을 초과할 만큼 충분히 크고, 다른 투자원만큼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인적자본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인적자본 투자는 개인과 가계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가계의 교육비 지출 관련연구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양상에 초점을 두고 사교육의 지출부담이 가계의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1993; 정순희, 200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도시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연구대상의 절반에 근접하는 43.7%가 교육교양 오락비 우위적인 가계소비지출구조 유형에 속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쳐 교육비 지출의 과다로 인한 가계소비지출구조의 왜곡된 형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및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김성희(1996), 이윤금(1997), 박미희·여정성(2000) 등의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지

고 있다.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성림, 2002).

첫자녀의 학교급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박미희·여정성, 2000), 지출비율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즉 가족생활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자녀를 위한 금전비용의 증가에는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Turchi, 1975; Espenshade, 1984). 또한 금전비용의 비목별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비를 포함하여 식비, 의복비, 교통비,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김성희, 1995)

가구주 연령은 교육위주의 소비지출 패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주인숙·양세정, 1997). 가구주 성별의 경우 교육비 지출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편모가계의 경우 양부모가계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버지 또는 남편의 부재가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가계소비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해석된다(이윤금, 1997). 가구주 직업은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정순희, 2000), 주부의 취업상태 역시 유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유무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중 자녀양육 대체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연, 1995). 주인숙·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비지출 형태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는 가장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교육비 지출에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할애한

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가구주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못한 관계들을 보여주었다.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 수록 교육교양오락비 지출비중이 커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 또한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도시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교육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 역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계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 성향이 침체됨에 따라 교육비 지출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주인숙·양세정, 1997). 자녀수는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는 유의미하게 증가된다(Lino, 1990; 문숙재·김성희, 1995).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1년 도시가계조사로서, 이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2001년 월평균 5,141가구를 매월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계 중에서 무자녀 가계와 막내자녀 연령이 29세 이상인 가계를 제외한, 즉 교육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2,681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자녀에 대한 총교육비와 공교육비, 그리고 사교육비를 통해 분석하였다. 총교육비는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통계청, 2002)로서, 본 분석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의 납입금(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공교육비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를 일컬으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육성회비, 실험실습비, 생활관비 등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통계청, 2002)로서, 총교육비에서 공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납입금(유치원은 비해당)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사교육비로 분석하였다. 즉 유치원 납입금, 각종 교재 및 부교재 구입비, 과외학원비를 포함한 각종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등의 합산으로 산출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첫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초등교육기 이하, 중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교육비 지출 실태 및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에 차이가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교육비 지출 총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지출비용(월)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월) 총교육비에서 공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용(월)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배우자취업유무 거주 지역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가계소득	1=남 0=여 가구주의 연령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이상 1=관리전문직 2=준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직 5=노무직/기타 1=취업 0=비취업 1=서울 0=기타 1=자가 0=전세 및 기타 1=확대가족 0=핵가족 자녀수(명) 막내자녀의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있는 경우 이미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취학전 아동기까지도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 포함시켰으며, 대학교육기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교육기 이상으로 확장한 것은 대학교육기에서 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고등교육과 취업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까지 확대, 포함한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배우자취업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가계소득을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되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는 고졸을 준거집단으로, 그리고 직업은 통계청의 분류에 근거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로 나누었으며 사무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가구주

성별, 배우자취업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는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자녀수와 막내자녀 연령, 그리고 가계소득은 연속변수로 사용되어졌다. 회귀분석에 앞서 Tolerance, VIF 값의 검증을 통해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총교육비와 공교육비, 그리고 사교육비 각각에 대해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회귀방정식 모델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여성가구주가 8.1%에 머물렀으나 가족생활주기가 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변수(N, %) 연속형변수(Mean, S.D.)	초등교육기이하 (N=1,346)	중등교육기 (N=318)	고등교육기 (N=354)	대학교육기이상 (N=663)
가구주 성별	남 1,237 (91.90)	274 (86.16)	295 (83.33)	500 (75.41)
	여 109 (8.10)	44 (13.84)	59 (16.67)	163 (24.59)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101 (7.50)	54 (16.98)	102 (28.81)	307 (46.30)
	고졸 679 (50.45)	167 (52.52)	183 (51.69)	247 (37.25)
	전문대졸 150 (11.14)	27 (8.49)	14 (3.95)	15 (2.27)
	대졸 354 (26.30)	59 (18.55)	43 (12.16)	84 (12.67)
	대학원 이상 62 (4.61)	11 (3.46)	12 (3.39)	10 (1.51)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159 (11.81)	40 (12.58)	35 (9.89)	64 (9.65)
	준전문직 175 (13.00)	25 (7.86)	31 (8.75)	37 (5.58)
	사무직 157 (11.66)	30 (9.43)	20 (5.65)	21 (3.17)
	서비스직 235 (17.46)	59 (18.56)	83 (23.45)	152 (22.93)
	노무직/기타 620 (46.07)	164 (51.57)	185 (52.26)	389 (58.67)
배우자 취업유무	취업 360 (26.75)	116 (36.48)	122 (34.56)	143 (21.57)
	비취업 986 (73.25)	202 (63.52)	231 (65.44)	520 (78.43)
거주지역	서울 227 (16.86)	43 (13.52)	55 (15.54)	120 (18.10)
	기타 1,119 (83.14)	272 (86.48)	299 (84.46)	543 (81.90)
주택소유 형태	자가 788 (58.54)	232 (72.96)	286 (80.79)	556 (83.86)
	전세 및 기타 558 (41.46)	86 (27.04)	68 (19.28)	107 (16.14)
가족형태	확대가족 147 (10.92)	39 (12.26)	38 (10.73)	75 (11.31)
	핵가족 1,199 (89.08)	279 (87.74)	316 (89.27)	588 (88.69)
가구주 연령	37.46 (5.42)	43.67 (3.83)	46.32 (4.01)	53.00 (5.41)
자녀수(명)	1.85 (0.59)	1.93 (0.57)	1.90 (0.64)	1.94 (0.81)
막내자녀 연령	5.05 (3.43)	12.32 (2.88)	15.38 (3.05)	21.56 (3.80)
가계소득(천원/월)	2,171 (1,084)	2,386 (1,222)	2,294 (1,039)	2,468 (1,350)

전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무려 24.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성장과 남성가구주의 은퇴, 질병 및 사별로 인한 자연적인 증가로 보여진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고졸의 학력이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가구주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취득한 경우가 3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은 모든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관리직은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1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의 경우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 11.66%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3.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나타내는 배우자취업유무를 살펴보면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3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고등교육기, 초등교육기 이하, 대학교육기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거주 가계가 13.52%에서 18.10%의 범위를 차지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가보유율이 증가하여 초등교육기 이하에서는 58.54%였던 것이 대학교육기 이상에서는 83.86%로 나

<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분산분석(원/월)

가족생활주기	총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Mean	F값	D	Mean	F값	D	Mean	F값	D
초등교육기이하(N=1,346)	252,777		A	47,045		A	205,732		A
중등교육기(N=318)	393,338	205.88***	B	138,604	333.56***	B	254,735	1,289.23***	B
고등교육기(N=354)	481,697		C	294,659		C	187,038		C
대학교육기이상(N=663)	281,681		D	227,545		D	54,136		D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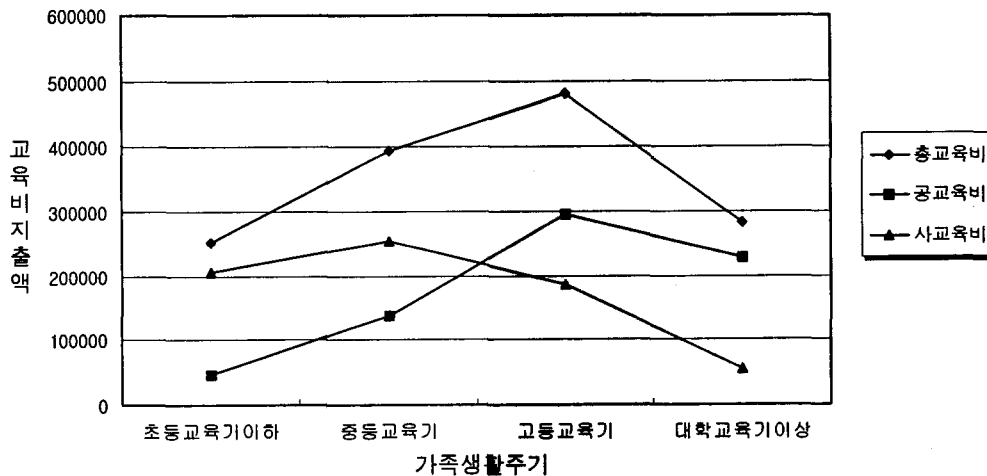
타났다. 가족형태의 경우 핵가족이 모든 가족 생활주기 단계에서 87%를 넘는 우위를 점하였고, 가구주 연령의 경우 초등교육기 이하의 가계가 평균 약 38세, 그리고 대학교육기 이상의 가계에서는 평균 53세로 나타났다. 자녀 수의 경우는 1.85-1.94명의 범위로 나타났고, 막내자녀 연령은 초등교육기에서 평균 5.05세, 대학교육기 이상에서 평균 21.56세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경우 대학교육기 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 약 2,468천원이었으며, 초등교육기 이하에서 가장 낮은 평균 2,171천원으로 나타났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분석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 분석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총교육비, 공교육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모두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총교육비의 경우 고등교육기의 단계에서 481,697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등교육기 393,338원, 대학교육기 이상 281,681원, 초등교육기 이하 252,777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비가 점차로 증가하고 그

<그림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부담은 고등교육기에서 절정에 이르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총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산이므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한 중·고등교육기 단계에서의 지출적 부담이 대학교육기 단계에서의 등록금 부담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교육비는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육성회비, 실험실습비, 생활관비 등의 합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고등교육기 단계가 평균 294,659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교육기로서 227,545원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 단계에서의 공교육비가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첫자녀가 연령상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더라도 인적자본 투자가 자발적 선택의 문제(대학교육의 선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고등교육기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254,73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교육기 이하 205,732원, 고등교육기 187,038원, 대학교육기 이상 54,136원의 순으로 지출하였다. 중등교육기 단계는 공교육비가 고등교육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 여력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교육기에서는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공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중등교육기 만큼의 사교육비 지출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공교육비의 부담이 없는 반면,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조기교육과 각종 예체능의 보충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첫자녀가 중학생일 때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평균 231,051원)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박희희·여정성, 2000).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분석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분석은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이다.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분석은 실질적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비율이다. 소비지출 중 총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교육기 단계 19.85%,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 15.43%,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 1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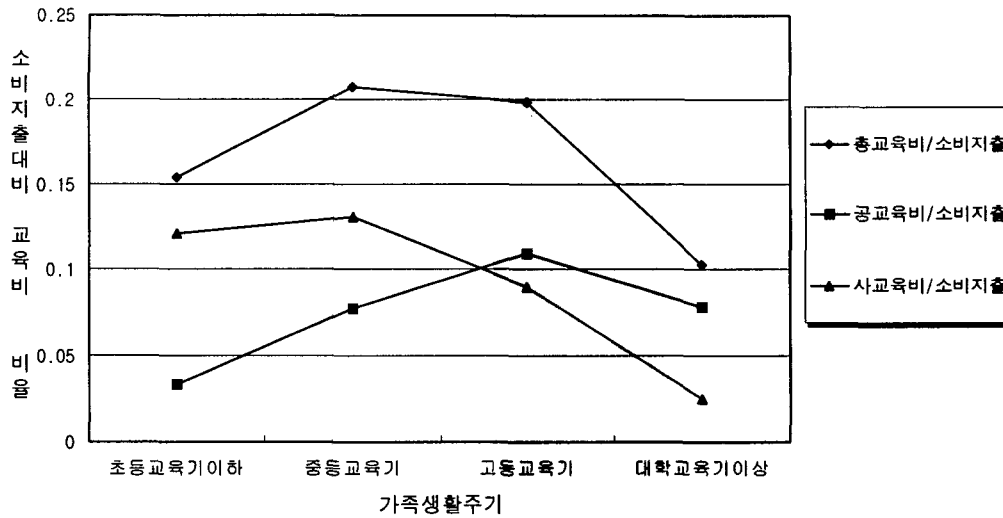
<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분산분석

가족생활주기	총교육비/소비지출			공교육비/소비지출			사교육비/소비지출		
	Mean	F값	D	Mean	F값	D	Mean	F값	D
초등교육기이하(N=1,346)	0.1543		A	0.0332		A	0.1211		A
중등교육기(N=318)	0.2080	219.28***	B	0.0768	148.16***	B	0.1312	2,269.49***	B
고등교육기(N=354)	0.1985		C	0.1093		C	0.0892		C
대학교육기이상(N=663)	0.1031		D	0.0781		B	0.0249		D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림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3>과 <그림 1>의 총교육비 절대액수에서는 고등교육기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면에서 보자면 중등교육기가 가장 큰 부담을 안는 시기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총교육비 부담이 절정에 달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은 소비지출이 소득의 함수이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교육비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대학교육 선택의 효과와 결부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지출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 3.32%, 중등교육기 단계 7.68%, 고등교육기 단계 10.93%로 절정에 도달하며, 대학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 7.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13.12%로 가장 높고, 초등교육기 이하 12.11%, 고등교육기 8.92%, 대학교육기 이상 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출부담이 가장 큰 중등교육기 단계까지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공교육비의 부담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으며, 고등교육기의 단계에 오면 공교육비의 부담과 사교육비의 부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부담도 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지만 현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교육 이외의 인적자본의 투자나 첫자녀 이외의 자녀들이 중고등교육기에 있는 경우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로 해석할 수 있다.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에 제시된 총교육비 분석을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의 경우 초등교육기 이하의

<표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총교육비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총 교육비			
		초등교육기이하	중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이상
		B(β)	B(β)	B(β)	B(β)
가구주 성별(여성)		-22341 (-0.02**)	18314 (0.02)	-18392 (-0.01)	-16619 (-0.01)
가구주 연령		1669.25 (0.03**)	2960.75 (0.03)	9423.83 (0.05**)	-6094.58 (-0.04**)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62464 (-0.06***)	-17390 (-0.02)	-75095 (-0.05**)	-104590 (-0.06***)
(고졸)	전문대졸	5686.22 (0.01)	171739 (0.12***)	-49119 (-0.01)	76125 (0.01)
	대졸	38477 (0.07***)	98215 (0.10***)	5093.23 (0.00)	49905 (0.02)
	대학원이상	56320 (0.05***)	205609 (0.09***)	320884 (0.08***)	-24940 (-0.00)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32041 (0.04***)	-17403 (-0.01)	-42686 (-0.02)	-51760 (-0.02)
(사무직)	준전문직	16575 (0.02*)	-66869 (-0.04*)	88068 (0.03)	-153827 (-0.04*)
	서비스직	-3724 (-0.01)	-52072 (-0.05*)	-26965 (-0.02)	-227059 (-0.11***)
	노무직/기타	-14969 (-0.03*)	-52807 (-0.07*)	-7486.93 (-0.00)	-208599 (-0.12***)
배우자취업유무(비취업)		-26277 (-0.05***)	-69013 (-0.08***)	-52459 (-0.03*)	-44778 (-0.02)
거주지역(서울외의 지역)		42491 (0.06***)	119296 (0.10***)	44405 (0.02)	9882.48 (0.00)
주택소유형태(무주택)		32524 (0.06***)	40629 (0.05**)	60706 (0.03)	92130 (0.04***)
가족형태(핵가족)		-26205 (-0.03***)	-52658 (-0.04**)	-74758 (-0.03*)	-71063 (-0.03*)
자녀수		90172 (0.21***)	184357 (0.26***)	265141 (0.22***)	135226 (0.13***)
막내자녀연령		18502 (0.26***)	23408 (0.17***)	23246 (0.09***)	-13319 (-0.06***)
가계소득		0.04749 (0.21***)	0.06251 (0.19***)	0.08850 (0.12***)	0.02965 (0.05***)
상수		-196597	-552662	-1016452	734938
R square		0.2386	0.1713	0.0744	0.0595
F-value		284.85***	46.18***	19.97***	29.35***

* p < .05 ** p < .01 *** p < .001

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남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이 더 많게 나타나, 여성 가구주 가계의 교육 투자 열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은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를 제외한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각 생활주기 단계 내에서도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은퇴가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고졸의 준거집단에 비해 중졸이하의 집단에서 유의미

하게 적은 총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총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가족생활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향이 나타나 부모의 학력수준과 총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교육의 혜택을 입은 가구주 가계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역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교육의 생산성 효과가 세대를 거쳐 전이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구주 직업은 고등교육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초등교육기 단계에서는 사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직 종사자가계가 더 높은 지출을 그리고 노무/기타직에

<표 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교육비 증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 교육 비			
		초등교육기이하	중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이상
		B(β)	B(β)	B(β)	B(β)
가구주 성별(여성)		-24288 (-0.05***)	-9812.05 (-0.01)	-8304.64 (-0.00)	-6886.52 (-0.00)
가구주 연령		991.31 (0.03**)	4209.59 (0.05**)	8998.74 (0.05**)	-6598.27 (-0.04**)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중졸이하	-2857.68 (-0.01)	20022 (0.02)	-51541 (-0.03*)	-94759 (-0.06)
	전문대졸	1902.68 (0.00)	60803 (0.05**)	-16728 (-0.00)	87350 (0.02)
	대졸	8693.49 (0.03**)	40223 (0.05*)	-20309 (-0.01)	33435 (0.01)
	대학원이상	36784 (0.06***)	230076 (0.13***)	87818 (0.02)	-25103 (-0.00)
가구주 직업 (사무직)	관리전문직	8342.50 (0.02)	-6864.77 (-0.01)	-75852 (-0.03)	-87516 (-0.03)
	준전문직	-8119.52 (-0.02)	-28981 (-0.02)	-42518 (-0.02)	-178643 (-0.05**)
	서비스직	-5609.97 (-0.02)	7783.16 (0.01)	-67366 (-0.04)	-236423 (-0.12***)
	노무직/기타	-4073.21 (-0.01)	14569 (0.02)	-29071 (-0.02)	-203162 (-0.12***)
배우자취업유무(비취업)		-7777.06 (-0.02**)	-35156 (-0.05**)	-35333 (-0.02)	-36164 (-0.02)
거주지역(서울이외 지역)		3080.01 (0.01)	3018.68 (0.00)	6880.96 (0.00)	-4337.61 (-0.00)
주택소유형태(무주택)		-4854.67 (-0.02)	-13188 (-0.02)	16246 (0.01)	80821 (0.03**)
가족형태(핵가족)		3995.32 (0.01)	-50266 (-0.05**)	-70849 (-0.03*)	-81561 (-0.03**)
자녀수		2452.80 (0.01)	166580 (0.30***)	229360 (0.21***)	127805 (0.12***)
막내자녀연령		2457.97 (0.06***)	33325 (0.30***)	40677 (0.18***)	-2463.00 (-0.01)
가계소득		0.00305 (0.02*)	0.00978 (0.04*)	0.04215 (0.06***)	0.01621 (0.03)
상수		-17311	-794404	-1212033	525860
R square		0.0174	0.0880	0.0341	0.0386
F-value		16.08***	21.55***	8.78***	18.63***

* p < .05 ** p < .01 *** p < .001

종사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육기와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준전문직과 서비스직, 그리고 노무/기타직 종사자들이 사무직 종사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취업유무를 살펴보면 모든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맞벌이인 가계가 가구주 혼자 취업한 경우보다 총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계가 아직까지는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취업 동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며, 이러한 맞벌

이 가계의 교육적 투자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거주 가계가 기타지역 가계에 비해 총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등교육기까지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고등교육기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는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육을 위한 직간접적인 투자와 대학교육 자체는 지역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무주택 가계에 비해 총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가족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총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

력을 미쳤다. 이는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자녀중심의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수는 모든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초등교육기 단계를 제외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교육기 이하 단계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소득의 경우 모든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총교육비와 강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가 미래의 잠재소득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표 6>에 제시된 공교육비의 분석을 살펴보면, 회귀모델의 설명력이 앞의 총교육비나 뒤에 제시될 사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교육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작고, 의무성이 부과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은 앞의 총교육비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주 직업의 경우는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준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직에 종사하는 경우 공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적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교육비 지출은 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평준화된 공교육 체계를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뒤에 제시될 사교육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주택소유형태의 경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무주택

자나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고등교육기까지의 공적인 교육비 지출에는 차이가 없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육의 단계에서는 주택소유 여부가 경제적 여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중등교육기 단계에서부터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자녀수 역시 중등교육기 이상에서부터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기의 단계까지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공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 가계소득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계소득과 강한 직접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교육적 열의 및 자녀의 수학적 능력과 같은 경제 이외의 요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분석의 회귀모델은 <표 7>과 같다. 중등교육기의 단계에서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가구주 가계보다 유의미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그 반대성향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남성가구주 가계이고, 맞벌이 여부를 나타내주는 배우자취업유무의 영향력이 모두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다. 중등교육기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학교 교과과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체능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보충의 형태로 지출되며 이는 여성가구주 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대학수업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투자라는 점에서 볼 때, 대학교육 투자가 어려운 여성가구주 가계의 대체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표 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교육비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 교육 비			
		초등교육기이하	중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이상
		B(β)	B(β)	B(β)	B(β)
가구주 성별(여성)		1947.34 (0.00)	28126 (0.04**)	-10088 (-0.01)	-9732.21 (-0.03**)
가구주 연령		677.94 (0.02)	-1248.85 (-0.02)	425.09 (0.01)	503.69 (0.02)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중졸이하	-59606 (-0.08***)	-37412 (-0.06***)	-23554 (-0.04**)	-9830.98 (-0.04**)
	전문대졸	3783.54 (0.01)	110936 (0.13***)	-32391 (-0.02)	-11224 (-0.01)
	대졸	29784 (0.07***)	57991 (0.09***)	25402 (0.03*)	16469 (0.04***)
가구주 직업 (사무직)	대학원이상	19536 (0.02*)	-24468 (-0.02)	233066 (0.17***)	163.29 (0.00)
	관리전문직	23699 (0.04***)	-10538 (-0.01)	33166 (0.04)	35756 (0.08***)
	준전문직	24694 (0.04***)	-37888 (-0.04**)	130586 (0.14***)	24815 (0.04*)
	서비스직	1885.97 (0.00)	-59855 (-0.10***)	40401 (0.07*)	9364.28 (0.03)
	노무직/기타	-10895 (-0.03*)	-67376 (-0.14***)	21584 (0.04)	-5436.61 (-0.02)
배우자취업유무(비취업)		-18500 (-0.04***)	-33857 (-0.07***)	-17127 (-0.03*)	-8613.65 (-0.03*)
거주지역(서울이외 지역)		39411 (0.07***)	116277 (0.16***)	37524 (0.05***)	14220 (0.04***)
주택소유형태(무주택)		37378 (0.09***)	53817 (0.10***)	4446 (0.07***)	11309 (0.03**)
가족형태(핵가족)		-30200 (-0.05***)	-2392 (-0.00)	-3909.46 (-0.00)	10498 (0.02*)
자녀수		87720 (0.25***)	17777 (0.04*)	35781 (0.09***)	7421.12 (0.04***)
막내자녀연령		16044 (0.28***)	-9917.07 (-0.12***)	-17431 (-0.21***)	-10856 (-0.31***)
가계소득		0.04444 (0.24***)	0.05273 (0.26***)	0.04635 (0.19***)	0.01343 (0.13***)
상수		-179287	241743	195581	209078
R square		0.2953	0.2647	0.2384	0.1689
F-value		380.94***	80.45***	77.81***	94.30***

* p < .05 ** p < .01 *** p < .001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은 생활주기 전단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할 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은 더 많게 나타났으며, 준전문직의 경우도 중등교육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무/기타직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사교육비 지출을 보였다. 배우자가 취업하여 맞벌이인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모든 생활주기 단계에서 유의미

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사교육 투자 여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기타 지역의 가계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풍을 짐작할 수 있었고, 주택 소유는 사교육비 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가족의 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초등교육기 이하에서의 사교육에는 부적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자녀수는 가족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막내자녀 연령은 초등교육기 이

하의 단계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그 이외의 전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인이었다. 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도 막내자녀 연령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첫자녀가 대학교육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해도 막내자녀가 아직 중등교육기에 머물고 있다면 사교육비의 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가계소득은 생활주기 전단계에 걸쳐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중등교육기와 고등교육기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하여 미래의 잠재적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의 자료로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계의 교육비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 지출을 살펴보고, 이들 교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을 가족생활주기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교육비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로 증가하다가 고등교육기에서 절정에 이르며(월평균 481,697원),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공교육비 역시 고등교육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교육기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납입금이 고등학교의 납입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는 중등교육기 단계(월평균 254,735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교육기 이하(205,732원), 고등교육기 단계(187,038원),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54,136원)순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육기 단계는 공교육비가 고등교육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 여력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교육기에서는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공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해 중등교육기 만큼의 사교육비 지출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는 공교육비의 부담이 없는 반면,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조기교육과 각종 예체능의 보충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지출대비 교육비 비율 분석은 실질적인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재무비율이다. 소비지출 중 총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등교육기 단계에서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교육기 19.58%, 초등교육기 이하 15.43%, 대학교육기 이상 1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교육비 절대액수에서는 고등교육기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면에서 보자면 중등교육기가 가장 큰 부담을 안는 시기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지출이 소득의 함수이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교육비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대학교육 선택의 효과와 결부되

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출부담이 가장 큰 중등교육기 단계까지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공교육비의 부담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으며, 고등교육기의 단계에 오면 공교육비의 부담과 사교육비의 부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부담도 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지만 현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교육 이외의 인적자본의 투자나 첫자녀 이외의 자녀들이 중고등교육기에 있는 경우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총교육비의 회귀모델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 가족형태,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계소득이 모든 생활주기 단계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총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의 혜택을 입은 가구주 가계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역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교육의 생산성 효과가 세대를 거쳐 전이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총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는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자녀중심의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수는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를 제외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교육기 이하 단계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강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가 미래

의 잠재소득을 향상시키는 인적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가구주 연령은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를 제외한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각 생활주기 단계 내에서도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은퇴가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취업유무를 살펴보면 맞벌이인 가계가 가구주 혼자 취업한 경우보다 총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계가 아직까지는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취업동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며, 이러한 맞벌이 가계의 교육적 투자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거주 가계가 기타지역 가계에 비해 총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등교육기까지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고등교육기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육을 위한 직간접적인 투자와 대학교육 자체는 지역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교육비의 분석의 경우 회귀모델의 설명력이 총교육비나 사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교육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작고, 의무성이 부과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구주연령이었고 그 방향 및 영향력은 총교육비 지출 모델과 유사하다. 주택소유형태의 경우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무주택자나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 고등교육기까지의 공적인 교육비 지출에는 차이가 없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육의 단계에서는 주택소유 여부가 경제적 여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 가계소득은 그 이전의 생활단계와는 대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계소득과 강한 직접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교육적 열의 및 자녀의 수학적 능력과 같은 경제 이외의 요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분석의 회귀모델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배우자취업유무, 거주 지역, 주택소유형태,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가계소득이 모든 생활주기 단계상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직업면에서는 상위층에 속할수록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배우자가 취업하여 맞벌이인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생활주기 전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사교육 투자 여력이 경제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기타 지역의 가계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풍을 짐작할 수 있었고, 막내자녀 연령은 초등교육기 이하의 단계에서만 정적인 관계(그 이외의 단계에서는 부적임)를 보였고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인이었다. 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육기 이상의 단계에서도 막내자녀 연령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첫자녀가 대학교육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해도 막내자녀가 아직 중고등교육기에 머물고 있다면 사교육비의 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가계소득은 생활주기 전단계에 걸쳐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중등교육기와 고등교육기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비 지출이 인적자본 투자의 선택적 문제라는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의 사항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과 대학교육기 이후 29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하여서는 취학전 아동기와 초등학교 아동기를 분리하고, 대학교육기와 대학교육기 이상을 분리하여 가족생활주기를 좀더 세분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분석의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연보를 사용하였으므로 부모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사회심리적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한계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변인을 함께 포함하는 도시가계 자료의 조사 및 축적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통계연보
- 2) 김성희(2002),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6(1), 53-72
- 3)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

- 한 투자행동: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노동부(200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5)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6) 문숙재·정순희·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교문사
 - 7)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8) 배무기(1999), 노동경제학, 경문사
 - 9)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10) 이윤금(1997),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한가정학회지, 35(4), 229-241
 - 11) 이준구(1999), 「미시경제학」, 법문사
 - 12) 정순희(2000),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간 소비지출 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93-108
 - 13)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 14)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15) 정진화(1996),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 16) 조우현(2002), 「노동경제학」, 법문사
 - 17) 주인숙·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18) 통계청(2003), 2000 인구주택조사보고서
 - 19) 통계청(2002), 도시가계연보
 - 20) 통계청(2001),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21) 통계청(2000).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 22)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23)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 24)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25)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6) Erikson, G.(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Labor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36-254
 - 27) Espenshade, T. J.(1984), *Investing in Child*, The Urban Institute Press-Washington, D. C.
 - 28) Huston, S. J.(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29) Lazear, E. P. & Michael, R. T.(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